工의 苦心作임을 알 수 있다。光背一端이 破失됨이 유감이나 三尊이 完存함은 또한 香徒의 造成 發願에 의함일까

(三尊現高 二〇。五cm 前面幅 一五cm 厚八cm) (七月 十四日)

# 高麗 梵鐘의 新例

鄭 永 鎬



通型의 靑銅製 高麗 梵鐘으로 總高 二〇cm의 小鐘이다。鐘頂에는 甬筒과 龍鈕가 있으나 現在는 寶珠를 갖고 있는 龍의 一足만이 殘存하고 그 外部分은 缺損되어 있다。鐘肩上周緣에는 山形文을 돌렸으나 破損된 部分과 우그러진 곳이 많으며 上、下帶에는 等行의 數條線으로 波狀文을 새겼다。上帶에 連한 乳廓이 四處에 配置되었는데 二條線으로된 波狀文을 돌린 안에는 圓形內에 球形의 九乳頭가 突出되어 있다。幢座는 三處에 있으며 圓形으로서는 蓮瓣은 없다。鐘腹에는 四處에 坐像이 陽鑄되었으나 磨損과 靑銹로 尊名은 分別키 어렵다。한편 一幢座 웡편과 坐像間地에는 各一點씩(都合二個)同一한 手法의 彫飾(樂器類?)이 있어 注目되었다。鐘口가 두툼하게 잡히는 高麗鐘으로서 鐘身에 若干 우그러진 部分이 있으나 鐘全面에 靑綠銹가 있고 鐘頂의 龍鈕에 傷痕이있을 뿐 比較的 完形에 가깝다 할 것이다。배흘림이 甚하지 않아 날씬한 듯하나 各部의 手法이 洗鍊되지 못하여 말쑥한 印象을 주지 않는다。年代는 高麗下代로 推定된다。實測値(cm)는……甬筒高 四·八 口徑 十三·七 口徑厚 一·五 上徑 八·三 上帶 一·二 下帶 一 八 幢座徑 二一·八 乳廓 上 三·七 下 四·五×四이다。이 梵鐘은 今年 六月初에 京畿道 楊平郡 龍門山 廢寺址의 바위틈에서 發見되어(처음 發見當時부터 바위에 끼어 우구러져 있었다고 함) 그 후 곧 骨董仲介人을 通하여 市內 博古堂(鍾路三街 七三)에 入手되었다는 것인데(博古堂主人 黃圭董氏 談話) 지난 六月 二十二日 黃氏의 好意로 筆者는 現品을 調査할 수 있었다。끝으로 이 遺物이 잘 保存되기를 期待하면서 調査에 많은 便宜를 주신 氏께 感謝드린다。

# 淸原郡 梧倉面 石造佛像

李 殷 昌

一九六三年 가을에 忠淸北道 淸原郡 梧倉面의 石造佛像 二軀를 調査할 수 있었다。其一은 槐亭里의 石造如來立像이고 其二는 塔里의 石造佛坐像인 바 모두 精巧한 石像이기에 이에 簡單히 紹介하고자 한다。

一、槐亭里 石造如來立像

忠北線 梧根場驛에서 鎭川行 道路로 가다가 槐亭里 앞에서 徒步로 約 一km쯤되는 「탑상골(塔像洞)」을 찾으면 寺址로 推定되는 곳이 있고 이곳에 홀로 石像 一軀가 서 있다。丘陵 南斜面에 西向하고 있은즉 位置하고 있는 地形과 方向 等으로 보아 原位置를 變更한 것 같다。

石像은 花崗石製로 그 乳白 돌색이 그대로 있고 右肩 右手의 一部가 破損된 外 比較的 完存하는 것이다。素髮에 肉髻가 있는데 現存 肉髻는 破損으로 그 크기를 짐작할 수 없다。兩耳는 길고 耳朶가 어깨까지 드리우고 있으며 耳孔이 表示되었다。兩眉間에는 白毫相이 있었던 바 지금은 圓孔痕跡이 남아 있으며 兩眉는 半月形의 三段弧線으로 그려져 있고